

박진성 석사과정생, 병해충 발생스토리 대회 '최우수'

전북대학교 곤충계통진화연구실 박진성 석사과정생(농축산식품융합학과, 지도교수 김소라)이 최근 열린 '제2회 병해충 발생스토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서 박진성 학생은 과수 해충으로 큰 피해를 주는 복숭아순나방(Grapholitha molesta)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복숭아순나방의 생태적, 형태적 특징을 상세히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AI 기술인 YOLO 알고리즘을 통해 해당 해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종을 동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미래 농업에 필수적인 신기술로, 농업 해충의 신속한 탐지와 예찰 모니터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박진성 학생은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김소라 지도교수님과 연구실 동료들, 그리고 농가 주민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이번 연구가 농업과학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2회를 맞이한 병해충 발생스토리 경진대회는 AI 진단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충 연구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응용곤충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 대회는 해충의 발생 단계별 영상 빅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열렸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향교동,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배달



남원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권혜정)는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김장김치 배달하며, 취약계층의 건강살핌과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안전 관리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 김00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김장준비가 부담되었는데 항상 신경쓰시며 잊지 않고 도와주시는 동장님께 참 감사하다"고 전했다.

권혜정 동장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다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게 복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024년 7월 31일 시행) 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 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근거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선 가연성 액체 등이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소 등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금지 규정을 통해 흡연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었으나, 주유소 내 흡연행위를 한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유소를 비롯한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시설 이용자가 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보호 대상자들과 아름다운 동행 실천

보호공단 전북지부, 2024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유공 자원봉사자 56명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지난 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24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호공단과 전북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전주지방검찰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지부 운영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법무보호사업에 기여한 전북지역 유공 자원봉사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실시하였다.



이날 보호공단 문창수 사무총장, 전주지방검찰청 박영진 검사장, 전주시 우범기 시장, 법무보호위원, CMS 후원업체, 고용협력기업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법무부장관 표창 1명, 감사장 표창 10명, 공단 이사장 표창 12명, 전라북도지사 표창 6명, 전주시장 표창 6명, 자랑스러운 전북 법무보호봉사대상 1명 등 총 5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명옥 협의회장은 "이번 복지대회는 보호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더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라며 "우리 전북지부협의회는 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

의 다리 역할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법무보호복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대회를 전했다.

황경주 지부장은 "오늘의 복지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기리며 보호사업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은 보호대상자들이 자립의 희망을 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와 같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연대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하며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행을 실현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 오경한 박사과정생,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선정

연 2000만원 지원 받아... '입양기록 통합관리 메타데이터 스키마 개발' 예정

전북대학교 오경한 박사과정생(기록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건)이 202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에 선정, 연구장려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박사과정생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간 2000만원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선정으로 오경한 박사과정생은 2년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경한 박사과정생

오 박사과정생의 연구 주제는 '입양기록의 통합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개발'이다. 이는 2023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양기록의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개발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경한 박사과정생은 "이번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김건 지도교수님과 기록관리학과 구성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연구를 통해 입양기록 관리 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 유아발레교실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지난 3월부터 관내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아발레 프로그램이 높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유아 발레교실은 평소 발레를 접하기 쉽지 않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신체 활동과 예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모집 단계부터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 높은 수요로 인해 1개 반을 추가 개설하여 총 9개월간 70회 수업에 677명의 유아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기본 스텝부터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동작 교육을 제공한 발레교실은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 99%가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참여 보호자들은 자제 교정,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전문 발레 강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김제시 백산면, 요교마을 정두섬씨 백미 50포 기탁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연말을 맞아 요교마을 이장 정두섬씨가 지난 3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10kg, 백미50포(14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백미를 기부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사람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받은 백미는 각 마을 이장님과 직원들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이웃 50가구에 직접 전달해 모두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정씨는 "연말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찬일 백산면장은 "올 연말에도 잊지 않고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신 정두섬 이장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구면 주민자치위-새마을부녀회, 김장김치 나눔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금량)와 새마을부녀회연합회(회장 조은희)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직접 담근 김장 김치 400포기를 경로당 및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전달해 추운 겨울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직접 배추를 재배·수확했으며 새마을부녀회 위원들은 평소 헌옷 모기, 농약병 수거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 나눔봉사에 힘을 모았다.

정금량 위원장은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하고, 김장배추를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부녀회연합회는 주민의 화합과 더불어 다같이 행복한 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9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8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9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8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